

광주 신창중, ‘모두 다 꽃이야!’ 장애인식개선 벽화 완성

통합교육 동아리 ‘모모신창’ 이십 여 명 학생 참여 작업

장애·비장애로 나누는 사고방식 넘어 재미·의미 찾아

광주 신창중이 지난 7일 ‘모두 다 꽃이야!’를 주제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내 벽화를 완성했다.

8일 신창중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신창중 통합교육동아리 ‘모모신창’ 소속 20여 명의 학생들이 함께 했다.

‘모모신창’은 장애와 비장애로 나누는 사고방식을 넘어 모두 모여 재미와 의미를 찾아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학생들은 코로나19로 벽화 작업

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벽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벽화의 내용 구상을 위해 지난 봄부터 장애학적 관점에서 장애 이야기하기, 장애인식개선 영화 관람 및 토의 등의 사전 과정을 거쳤다.

벽화 콘셉트와 디자인, 문구 등을 결정하기 위해 직접 조사해 보고 협의했다.

학생들은 벽화의 중심에는 ‘모두 다 꽃이야!’라는 곡의 가사를 인

용해 ‘산에 피어도 들에 피어도 길가에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우리는 모두 다 꽃이야!’라는 문구를 적었다.

신창중은 앞으로 완성된 벽화를 배경으로 다양한 장애인식개선 활동 및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창중 2학년 권대재 학생은 “이 벽화의 꽃들처럼 우리 모두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각자가 고유의 아름다움을 가진 한 송이의 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신창중 정희성 교장은 “이 벽화를 통해 학생들이 서로를 있는 그

대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성공적

인 통합교육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목포시, ‘복지기동대’ 안전망 강화

소규모 수리·주거환경 정비 등 취약계층 불편 해소

목포시의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이하 복지기동대)가 취약계층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 기타 저소득 위기가구 등 취약계층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운영 중인 복지기동대는 ▲세대당 30만원 이내의 전등·수전·콘센트 교체 등 소규모 수리 ▲세대당 100만원 이내의 청소·도배·장판·전기배선·보일러

수리 등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을 실시한다.

복지기동대는 시 전역과 23개동을 대상으로 한 24개 기동대로 구성됐으며, 총 117명이 활동하고 있다.

복지기동대원은 동행정복지센터의 맞춤형복지팀이 생활불편 사항을 접수하면 직접 수리하거나 민간기관에 위탁·처리하고 있다.

목포=박정수기자

광양시보건소,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 재개



광양시가 코로나19로 작년 잠정 중단됐던 ‘뇌청춘 건강100세 치매예방프로그램’을 보완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과 경로당 개방에 따라 지난 5일 운영 재개했다.

시는 지난 6월 치매예방지도자 34명이 참여한 가운데 비대면 화상 간담회를 개최해 프

그램 운영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프로그램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광양시 노인여가복지시설 관리기준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활동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미접종자는 반드시 접종완료

101개소 대폭 확대 운영

후에 참여하도록 했다.

‘뇌청춘 건강100세 치매예방 프로그램’은 고령화 시대 치매 예방활동을 강화해 어르신들의 건강수명을 연장함으로써, 치매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건강장수 마을을 조성하고자 2016년 28개 마을 경로당 중심으로 시작됐으나 2019년부터 101개소로 대폭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보건소 자체 양성한 34명의 치매예방지도자가 마을별 주 1회 방문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레크리에이션, 체조, 퍼즐, 게임, 회상그림 등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도 살펴 어르신들의 신체·정신적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광양=심종섭기자

곡성군, 비가 와도

희망복지 기동서비스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곡성군이 지난 1일 석곡면 능암마을에서 2021년도 13차 찾아가는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는 최고 31도에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 속에 진행됐다.

서비스단은 구슬땀을 흘리면서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비스단은 석곡파출소로 들어온 민원 해결에도 앞장섰다.

호우로 인해 건물 부근 전선에 불꽃이 튀는 민원이 이를 전에 접수했다는 소식을 듣고 해당 가정을 방문한 것이다.

서비스단은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며 누전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곡성=양해영기자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